

NEWS

2025년 9월 2일 화요일

광주·전남, 초광역권 발전 청사진 그린다

▶1면 'AI컴퓨팅센터'서 계속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AI 시대를 맞아 우리 광주, 호남이 제 자리를 찾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인프라, 전력, 사람 등이 조성된 광주에 필적할 만한 곳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유치되고, 광주와 호남이 AI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송전선 문제 등을 고려할 때 AI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호남. 광주이다"며 "광주는 미리부터 준비해 왔기에 인력 등이 준비돼 있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적절한 균형발전 생각하면 국가AI컴퓨팅센터 최적지는 광주이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과방위에서 적극 서포트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준호 퓨리오사시 대표는 "광주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며 "광주는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혁신의 중심이 될 국가AI컴퓨팅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최적지는 광주다. 광주는 전력, 우수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온 경험을 가진 도시"라며 "광주는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회가 왔다. 이제 호남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풍부한 3대 요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을 광주가 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새정부 성장 전략에는 지피유(GPU) 5만장 확보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 지역공약에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이 명시돼 유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미 인공지능(AI) 집적단지 5만㎡ 규모 부지와 120MW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인공지능(AI) 단계 사업 성과를 축적해 왔다.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2단계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연계해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 30명 구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등 장기 발전 전략 수립

광주와 전남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권 발전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 등 광주·전남 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직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위원장은 두 시·도 부단체장이 윤번제로 맡는다. 2025년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2026년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며, 부위원장은 허문구 산업연구

원 선임연구위원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 수행 중인 '초광역권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위한 질의와 제언을 활발히 이어갔다.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장기 발전 전략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초광역권에 반영될 예정이다.

계획에는 공간구조 재편,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산업·관광·문화 융합 발전, 혁신인재 육성 전략 등이 담겼다.

이 계획이 반영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가능해지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벨트 육성 등 두 시·도의 공동 추진 과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및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장인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위원회 출범을 선도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시

와 협력해 5극3특 정책에 부합하는 초광역권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병역명문가,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안평환·김나운 의원 공동 대표발의...5개 조례 개정

광주시의회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안평환 의원과 김나운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5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에게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승촌보 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시민의숲 야영장 시설사용료 7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감면 혜택을 2026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급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운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다양한 생활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

육군총장 김규하·해군총장 강동길·공군총장 손석락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락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사진)이 내정됐다.

정부는 1일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등 4성장군 7명을 전원 교체하는 군 지휘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29일 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등을 임명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다.

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장군 보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체납 끝까지 추적” 전남도, 세수 확충 총력

전담반 편성...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조사·강제처분 추진

전남도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운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시군과 함께 체

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시군 합동 전담 징수반을 꾸려 상시 징수체계를 가동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가택수색이나 감치, 사해 행위 취소 등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체납징수 실적 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성열 도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차오름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정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